

광주 김치수출 65% 줄어...본산지 위상 추락

지난해 2.6t 수출...업체 대부분 영세·가격 경쟁력도 밀려 시, 물류비·포장재·운송비 등 수출업체 지원 나서

광주지역 김치 수출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포장재·운송비 등을 지원하거나 컨설팅 비용을 주는 등 광주시의 지원책도 미비한 수준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말 기준 30여 개 김치 제조업체가 있는 광주의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2.6t, 금액으로는 1만8900달러에 그쳤다.

2016년 11.7t에 5만4000달러와 비교하

면 액수 기준으로 65%가 줄었다. 특히 2015년의 25t에 9만5700달러보다는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광주시는 이처럼 지역 김치 제조업체의 수출이 급감한데 대해 대부분 업체의 규모가 작고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규모로 생산되는 다른 지역의 김치 산업에 비해 광주지역에서는 여전히 소규모 생산으로 더 많은 수출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광주의 30여 개 업체 대부분은 1일 생산량 10t 미만의 규모여서

1일 100t 이상 생산하는 수도권 대형 업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업체 규모가 작다 보니 바이어 초청이나 샘플 제작과 운송 등 수출 추진 과정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바이어가 방문하더라도 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실감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는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순수 국내 농산물만 사용하는 업체만 지원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등에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최근 김치 수출업체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김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7500만원을 들여 수출 물류비, 포장재, 운송비, 수출 김치 샘플 제작

과 운송비, 바이어 초청 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3300만원을 투입해 품질관리 등 컨설팅이 필요한 김치 가공업체에 분야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김치 업체 관계자는 "맛 있는 김치가 잘 팔리던 시절은 지났다. 체계적인 마케팅과 시장 개척 없이는 광주지역 김치 산업이 단기간에 좋아지긴 힘들 것"이라면서 "김치 수출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배추 등 재료 수급과 유통 과정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비와 물류비를 줄여 광주 김치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평염전-소금동굴힐링룸

신안 태평염전 해양 힐링스파 '한국형 웰니스 관광시설' 선정

순천만 정원은 지난해 선정

신안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8 한국형 웰니스 관광시설'로 선정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웰니스 관광시설은 이번에 선정된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와 지난해 선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습지와 장흥 우드랜드 등 총 3곳이다. 전국적으로는 33곳이 선정됐다.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관광이다.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올해 선정된 8개소는 시·도 추천 26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한국형 웰니스관광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외국인 접객 서비스 대응력 향상 등 다각적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한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지역인 신안 증도에 있는 천일염을 활용한 신개념 힐링공간이다. 미세한 향산화 소금입자를 호흡하도록 설계된 소금동굴 힐링센터와 우리 몸을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미네랄 부양욕 테라피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건의안' 1년만에 또 채택

진상규명·희생자 보상 담겨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채택한 건의안이다.

건의안은 신민호 의원을 대표로 58명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순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령 사업과 보상절차도 시행돼야 한다고 의원들은 요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2001년부터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제11대 전남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이번 건의안은 불과 1년여 전 비슷한 내용으로 채택된 바 있어 '대박작'으로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4일에도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수영장 탈의실·화장실 물가 꼼짝 마...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26일 오전 광주 매일리랜드 내 수영장의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서 불법카메라(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북부서는 8월말까지 여성을 상대로는 악성범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하남산단 TCE 배출량·대기 농도 크게 개선

세방산업 TCE 저감 노력 WHO 권고기준 만족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배출해 물의를 빚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세방산업 주변에서 TCE 배출량과 대기 중 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하남산단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광산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남·진곡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수준과 주민건강실태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6년 7월 세방산업의 TCE 다량 배출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영향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기오염 위해성 여부 조사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했다.

조사결과 세방산업과 인접한 국가유해대기측정망(광산소방서)의 TCE 평균농도는 2011~2016년 29.9ppb에서 2017년 3.93ppb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고, 하남산단 주변지역(6개 지점) TCE

농도는 2017년 0.17~0.77ppb로 측정됐다.

하남산단과 주변지역의 대기 중 TCE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환경관리 권고기준(4.28ppb)에는 만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세방산업과 가까운 산단 내부와 주거지역에서는 미국 환경청(EPA)의 독성참고치(0.4ppb)를 크게 초과해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획팀(TF)과 검증위원회를 통해 TCE를 근본적으로 저감할 방안을 마련해 세방산업에 권고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하남산단과 주변 주거지역의 대기 중 TCE 농도가 미국(EPA) 권고기준 이하가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세방산업은 2008년부터 6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TCE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중 장시성 도예교류단 강진청자축제 온다

2016년 이어 세번째 방문 워크숍·도예가 도요지 시찰

전남도는 세계 최대 요업도시이자 도자기 판로 허브인 중국 장시성 징더전시 도예교류단 12명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강진청자축제 참가자 전남을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전남도와 장시성 간 도자기 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두 지역 도예가들이 매년 도자기 축제에 참가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징더전시 도예교류단은 제46회 강진청자축제 전시 참가를 시작으로 7일 동안 '한

중 도자기 공동 워크숍', '지역 대표 도예가 도요지 시찰' 등 한-중 도자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제작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초의선사 탄생지, 가우도, 다산초당, 백련사 등 전남 주요 관광명소도 둘러볼 계획이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장은 "이번 중국 장시성 도예교류단 방문은 두 지역의 도자기 제작기술 발전과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두 지역의 우의를 돈독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도예교류단은 오는 10월 징더전국제도자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